

세계적인 OTEMAS - 4반세기만에 막을 내리다

세계적인 3대 섬유기계전시회는 유럽의 ITMA, 미국의 ATME, 그리고 일본의 OTEMAS로서, 서로 전시회 개최가 겹치지 않도록 각기 4년마다 잘 운영되어 왔는데, 점차 세계의 섬유공업이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면서 경쟁이 치열해 졌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기술을 비롯한 광범위한 과학·기술이 눈부실 만큼 급속도로 발전하여 섬유기계도 고속화·정밀화·자동화 등이 발달되어 섬유기계업계도 해를 거듭할수록 급진적으로 발전하였고 경쟁도 치열해 졌다. 섬유업계에서는 이들 전시회에서 최첨단 섬유기계의 발전동향이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사업발전에 참고로 할 수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정보수집 기회로 삼아, 세계주요 섬유기계 업계를 비롯한 섬유업계의 주요인사들이 모여들었다.

이들 3대 전시회 중 가장 역사가 길고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ITMA(International Textile Machinery Exhibition)는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인 1951년 유럽에서 창설되어 4년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를 돌아가면서 개최되어, 1999년 제13회 전시회가 프랑스의 파리에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의 ATME-I(American Textile Machinery Exhibition-International)는 ATMA(American Textile Machinery Association)와 “텍스타일·홀·코퍼레이션(Textile Hall Corporation)을 스폰서(sponsor)로 하여 ITMA와 중복이 안되도록 하면서 두 번에 나누어, 처음에는 뉴저지주의 아틀랜틱·시티(Atlantic city)에서 개최하다가, 1996년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빌(Greenville)에서 4년마다 개최해 오고 있다. 2000년 10월에는 섬유(fiber), 실(yarn) 및 부직포(non-woven) 분야의 전시가 있었고, 2001년 4월에는 제직(weaving), 편성(knitting), 염색

(dyeing), 날염(printing) 및 마무리(finishing) 분야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일본의 OTEMAS(Osaka International Textile Machinery Show)는 ITMA보다도 26년 늦게, ITMA와는 2년의 차를 두고 1977년 오사카에서 개최하기 시작하여 2001년 10월에 제7차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일본은 세계에서 굴지의 섬유공업과 이를 지탱해 주고 있는 섬유기계공업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군비확장 대신에 여유국력을 과학·기술의 R&D에 적극 투자함과 동시에 선진국의 최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발빠른 공업발전을 이루어 선진섬유기계공업으로 발전하여, 아시아의 섬유시장을 겨냥한 전시회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은 섬유 생산기지로서나 섬유소비시장으로서의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인도 등 많은 개발도상국이 운집하여 있는 아시아지역이 세계섬유생산기지로서 급격히 세계 무대에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세계 각국의 섬유기계 메이커들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 아시아시장을 중요시하고, 특히 세계섬유기계산업의 전통과 기술을 자랑하는 독일, 스위스, 이태리 등의 유럽세(勢)와 아시아에서는 섬유산업이나 섬유기술에 있어서 터줏대감 격인 일본기계메이커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열을 올리게 되었다.

아시아 섬유시장에서 일본섬유기계메이커들은 아시아의 터줏대감으로서의 유리한 점이나 최신 섬유기계의 성능이나 가격 등에서 우세한 상황에서, 유럽 섬유기계 메이커들은 오랜 역사나 발달된 기계공업이나 화폐가치의 우위성 등의 강점도 있으나, 일본보다도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유럽메이커의 고뇌와 거대한 전시장을 새로 만들고, 세계 인류의 국제적인 전시회를 끌어들이고 싶었던 싱가포르 정부와, 기반이 단단히 다져진 세계적인 전시회를 유치하여 사업실적도 올리고 수익도 얻고 싶은 화교계(華僑系)의 기획(企劃)회사 CEMATEX, 이들 세 기관의 속셈이 일치하여 OTEMAS가

제7회로서 오사카에서 막을 내렸고, 이를 후에 “제1회 ITMA아시아”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ITMA측에서는 “오사카는 체재비뿐만 아니라 전시비용이나 운반비 등이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의 관람자들의 여행부담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중국이나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각지에서 크고 작은 섬유기계전시회가 여기저기서 개최되고 있어, 이러한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ITMA”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섬유기계전시회”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 때문이라고 일본측에서는 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선 CEMATEX(歐洲纖維機械生産者聯盟)는 5년전에 유럽업체와 일본업체가 “ITMA아시아” 개최의 구상을 논의하는데 주재(主宰)한 바가 있었다. 그 당시 유럽측에서는 전시코스트 문제를 명분으로 일본 이외의 도시에서 개최하기를 주장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① 동양에서의 섬유기계전시회를 일본이외의 해외에서 개최하면 일본의 많은 우수 중소섬유기계메이커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어렵다 ② 오사카에서의 개최는 출품된 많은 생산설비를 직접 견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 설비의 공장도 견학할 수 있고 또한 관련기업과의 비즈니스·찬스(business chance)가 생길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CEMATEX의 주장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97년 10월에 개최된 제6회 OTEMAS에서 유럽측은 느닷없이 “2001년 10월에 싱가포르에서 ㉔TMA아시아㉔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CEMATEX의 부당한 처사에 일본측은 즉시 반박하였고, 일본섬유기계협회는 전회원이 만장일치로 “ITMA아시아에는 출품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의하였다.

당초에는 유럽측은 개최지를 홍콩이나 중국의 다른 도시 등으로 고민하였

으나 ITMA, 싱가포르 정부, CEMATEX 3자의 속셈이 일치하여, 전시회장이 나 교통, 통신, 호텔 등의 각종 인프라(infra : infrastructure)가 유리한 싱가포르로 결정되었다. 섬유기계의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가장 유리하지만, 이미 북경(北京)이나 상하이(上海)에서 정기적으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어 전시회의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제6회 OTEMAS가 끝나자 “OTEMAS는 97년 전시회로 끝이 났고, 2001년의 제7회 전시회는 개최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아시아 각 국에 짝 퍼졌는데, 이는 각지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거의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보인다.

ITMA 아시아 측에서는 제1회 전시회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유럽섬유기계 메이커의 OTEMAS 출품이 소극적이었으며, 중국, 한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의 섬유기계단체들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ITMA쪽을 적극 유치하였다고 한다.

한편 OTEMAS측에 있어서 일본섬유기계업계의 수요자이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업계가 계속 위축되어 왔으며, 설상가상으로 일본경제가 전반적으로 불황이 심한 상태에서 2001년 10월에 제7회 OTEMAS가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4반 세기동안 이어온 불씨를 죽일 수 없다”는 일본섬유기계업계의 일관된 지지와 오기로도 질 수 없다는 관계자의 열의와 꺾일 줄 모르는 프라이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OTEMAS”는 유럽섬유기계메이커가 거의 불참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일본섬유기계만으로 개최되었고, “ITMA아시아”는 일본섬유기계의 불참 속에서 유럽섬유기계만으로 개최되어, 서로 맞수끼리의 실력을 겨루고 비교할 수 없는 반쪽짜리 세계 전시회가 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섬유기계협회와 함께 4반세기 동안 OTEMAS를 개최해 온 오사카국

제견본시 위원회는 지금까지의 OTEMAS의 실적을 바탕으로 장차 섬유산업의 기술, 소재, 최종제품뿐만 아니라 마케팅 등을 포함한 일본의 오사카라는 이미지나 무게에 걸맞는 복합적인 견본시를 개최하고 싶다고 발표하였다.